

## 정치학에 있어 젠더와 다양성 이슈

2017 년 세계정치학회(IPSA) 젠더와 다양성 모니터링 리포트는 2011 년과 2013 년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'젠더'에 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, '다양성'의 여러 관점을 추가했다. 리포트는 IPSA 소속 국가별 정치학회(PSA) 서베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.

### 2017 PSA 서베이 결과



IPSA 소속 55 개 PSA 중 33 개가 답했고, 결과는 다음과 같다:

- PSA 회원의 약 1/3 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.
- PSA 회장 중 39%는 여성이었다.
- 추가적으로 상임이사 39%, 총무이사/사무총장 37%가 여성이었다.
- 대략 PSA 의 42%가 원주민 회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나, 호주와 미국 PSA 만이 원주민 회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.
- 극히 소수의 PSA 만이 인종/민족, 언어와 원주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, 종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.

### 제도적 노력과 모범 사례

2017 년도 서베이에에서 다양성 관련 제도를 구축한 PSA 숫자는 19 개로 늘어났다. 이는 학회와 연구모임의 성별, 인종, 민족 관련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한다. 더 드물게,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설립된 경우도 있었다. 모범 사례의 예로,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, 남성과 여성의 교차적 리더십, 다양성 연구를 진작하기 위해 학문적 수월성에 기초한 한 상(award)과 타이틀 제정 등의 방식이 있다. 어떤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효과가 있었는지 PSA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2017 IPSA 모니터링 리포트의 중요한 목표다.

## IPSA 데이터 조사 결과

사무국으로부터 받은 IPSA 데이터는 지난 20 년간 꾸준히 향상되어온, 여성 참여의 여러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준다. IPSA 위원회(council)와 집행위원회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은 40%를 넘어서고 있다. 마찬가지로, IPSA 회원 중 약 40%가 여성이고, IPSA 세계대회 참가자의 40% 이상이 여성이다. 젠더 문제 관련 연구위원회는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, IPSA 연구위원회 의장직의 1/3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의 IPSA 연구위원회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IPSA 상(award)의 여성 수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, 지난 20 년간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(IPSR)의 편집인 중 다섯 명이 여성이었다. 또한, 역사상 처음으로 3 년 동안 연속으로 IPSR 저자의 여성비율이 40%대에 이르렀다.

## 결론

2017 년 서베이와 국가별 PSA 와 IPSA 데이터 분석 결과, 정치학 학회의 여성 대표성이 진전되고, 학계의 주목받는 연구자와 리더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비록 이 성과가 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,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논의와 시행이 여성 포용의 큰 흐름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.

IPSA would like to thank Eui Young Kim for providing the translation.